



## 경기도 김동연, “청년들 하고 싶은 일 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자”

### 5팀 선발, 17개 시군에서 문화예술, 로컬 창업 등 다양한 활동 추진

경기도가 청년들의 지역활동 지원과 청년활동가 양성을 위해 선정한 '2024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25팀이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로컬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경기복지재단 청년지원사업단은 13일 도담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로 선정된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우리 청년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 기성세대, 제도, 정치 등이 그렇게 못 만들고 있다”며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년, 도민, 국민 전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하고 싶은 거 다하는 세상 만드는 데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과 도민들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청년공동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사업 중 하나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앞서 도는 도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5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지난 1월 공개모집,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25팀을 선발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문화예술 활동으로 지역주민과 소통·교류 ▲로컬 콘텐츠 개발로 지역사회 활력 제고 ▲지역 청년들의 정착 지원과 관계망



김병상/기자

형성 ▲다문화, 1인 가구, 소외계층을 위한 치유 및 사회참여 지원 ▲농촌지역으로의 청년 유입과 관심 제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기도 청년공동체로 활동 중인 아리모리양상불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팀별 31초 뽐내기, 미션 수행, 블록퍼즐 완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서로 활동을 격려하고 협력을 다졌다. ‘공감의 말 한마디’ 시간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청년공동체가 함께 청년들의 고민을 나누고 공감하며 격려의 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5월부터 홍보 서포터즈

운영 등을 통해 청년공동체 간 교류·협력의 장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11월에는 청년공동체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성과공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 전남도, 전국소년체전 등 주무대 안전 강화

### 전기·가스 등 유관기관·민간 전문가 등과 특별안전점검

전라남도는 5월 열리는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12일 개최식 주무대인 목포 실내체육관 특별안전점검을 했다.

이번 특별안전점검은 개최식 장소로 다중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목포실내체육관에 대해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 25명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이뤄졌다.

참여 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민간 전문가와 전남도 체전지원단, 사회재난과, 소방본부, 목포시 스포츠산업과, 안전총괄과, 목포소방서, 목포경찰서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회식 진행 시 안전요원 배치·안전관리 계획 ▲밀집우려지역 인파관리, 질서유지, 긴급차량 동선 확보,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주무대 시설물 구조 안전성 확보 여부 ▲누전차단기, 규격 전선, 전선 노출 여부 ▲가스배관 고정, 가스 누출 여부 ▲화기 관리, 화재 진압장비(소화기) 배치 여부 ▲승강기 검사, 비상 통화장치, 도어 안전장치 작동 여부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계도 조치하고, 절대공기 등 즉시 시정이 어려운 사항은 개막 전까지 반드시 보수·정비 계획을 세워 전국체전 전에 조속히 안전조치를 실행토록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체



전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 돼야 한다”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로 참가 선수가 불편 없이 최고의 기량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개최한 전국체전과 같은 수준으로 전국장애학생체전 기

과 전국소년체전 기간에 소방본부와 합동 ‘안전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목포시 등 22개 시군(안전부서)에서도 안전상황실을 가동토록 해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공조 체계를 강화해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 경북도 그때 그 퇴계처럼, 그 길 위에 지방시대2.1을 열다

### 제5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막식, 12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려



경상북도는 12일 서울 경복궁 사정전 일원에서 ‘제5회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 개막식’을 개최한다.

퇴계선생 마지막 귀향길 재현행사는 455년 전(1569년) 음력 3월 4일, 퇴계선생이 선조 임금과 조정 신료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귀향길에 오른 그날부터 안동 도산서원까지 14일간 약 270여km를 걸어 내려오신 것을 재현한 행사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이경훈 문화재청 차장, 주한대사(5개국), 권기창 안동시장,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 80여 명의 재현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재현단은 도산서원 지도위원과 안동 MBC 어린이 합창단의 도산십이곡 합창, 연극 ‘퇴계와 선조의 마지막 대화’ 공연을 관람하고 공동 단장의 다짐 인사가 끝난 후 출발한다.

특히, 올해 개막식에는 영국대사를 포함한 5개국의 주한대사와 외국인 유학생들의 참여로 경북의 퇴계정신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발판을 마련한다.

재현단은 청소년 33명을 포함한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12일부터 25일까지 13박 14일간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남양주, 양평, 여주), 강원도(원주), 충청북도(충주, 제천, 단양), 경상북도(영주, 안동) 등 5개의 광역시도를 지나며 수려한 풍광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도 곁들여 선생의 참 뜻을 되새긴다.

구간별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차에는 봉은사에서 차담회와 ‘떠나는 발걸음이 이래 더디니’ 공연이 펼쳐진다.

8일 차에는 충청감영(충주 관아공원)에서 문화공연과 시 창수(퇴계와 송담의 중벌 시)가 열리고, 9일 차에는 청풍관아(청풍문화재단지) 한벽루에서 전통무 공연과 이문원 교수의 ‘퇴계와 이자변을 둘러싼 조선의 선비사회’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린다.

12일 차에는 영주 이산 서원에서 ‘퇴계는 왜 서원을 주목했는가’라는 주제로 정순우 교수 강연이 진행된다.

마지막 14일 차에는 도산서원에서 고유제와 폐막식이 개최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퇴계는 450여 년 전 서원 교육의 체계화(교육의 균형발전), 강남 농법 보급(윤택한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지방으로 사람이 모이고, 그로 인해 지방

의 살림이 풍요로워지는 지역발전 선순환 모델을 구현했다.

‘16세기 서원운동’ - 퇴계선생은 착한 사람이 많아지는 세상을 만들려면 사람다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재향리선이다(在鄕里善人多))며 귀향을 확신했고 지역의 사림 교육기관인 서원 설립운동으로 이어진다. 퇴계 귀향길은 물러남의 길이자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를 위한 길이었다. - 조선에 서원 제도가 도입되던 시기는 16세기 중엽이다. 1543년(중종 38) 주세붕(周世鵬)이 풍기에 설립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을 시초로 하고 있지만, 조선 서원의 체제를 정비한 인물은 퇴계(退溪) 이황(李滉)이다. 이황은 1550년(명종 5) 백운동서원의 사액(賜額)을 실현시켰고, 초기 서원의 체제를 정비했다. - 퇴계선생의 서원운동은 지방의 교육혁신, 지역 인재양성 및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관광·교육 등을 통한 관계 인구 확대, 증가 문화를 통한 안채 교육(격대보육, 효와 예절 등 담당)과 사랑채 교육(권학담당) 등 한양을 증가하는 지방 생활문화 창조에 기여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저출생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퇴계 선생의 귀향길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경상북도는 올해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함께출산율 2.1명을 목표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해 외국인 광역비자 제도 도입, K-U시티 프로젝트, 기회발전 특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대 사회가 수도권 병에 걸린 요즘 시대에 퇴계선생 귀향은 경북의 지방시대 정신과 그 길을 같이한다.”며 “특히 퇴계선생의 귀향과 서원 운동이 지역 인재양성, 지방인구 유입 등 경북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고, 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2.1’을 열어가는 제2회 퇴계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 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주관: UFTF 영양특산물관광재단

# 경북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돌입

## “경북도 및 도교육청 대상,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내역과 자금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며, 도의원 3명, 전직 회계공무원 3명, 공인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등 10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의원(청도)을 대표위원으로 선출하고 간사로는 농수산위원회 노성환 의원(고령)을 선출했다고 말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3개팀으로 구성하여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의 결산검사는 4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7일에 걸쳐 실시하며 도 교육청의 지난해 총 세입은 6조 3,847억원(전년도 6조 8,227억원 대비 4,380억원 감), 총 세출은 5조 6,036억원(전년도 6조 2,252억원 대비 6,216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1,083억원(전년도 562억원 대비 521억원 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상북도의 결산검사는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 실시하며 지난해 총 세입은 13조 4,216억원(전년도 13조 9,584

억 원 대비 5,368억원 감), 총 세출은 12조 5,962억원이며(전년도 12조 9,625억원 대비 3,663억원 감), 순세계잉여금은 2,899억원(전년도 3,617억원 대비 718억원 감)으로 보고되어,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

수감소의 충격이 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대표를 맡은 이선희 의원은 “지난해에는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로 인해 정리추경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 당초 계획된 하천재해예방사업,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 등의 사업 예산이 급격히 줄었다”면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도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됐는지, 예산이 낭비없이 알뜰하게 쓰였는지 등을 세세하게 살펴볼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한철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집행된 예산을 검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화성시의회, 화성시 공평항 풍어제 참석..만선 기원하는 전통문화 널리 알려

화성시의회는 4월 13일, 공평항 광장(화성시 서신면)에서 열린 공평항 풍어제에 참석해 만선을 기원하는 전통문화를 함께 했다.

이날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위영란, 배정수, 김종복의원이 참석하고 공평항 풍어제 추진위원장, 경기남부 수협조합장, 어업인 등 내·외빈 300여 명이 함께 했다.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풍어제는 예로부터 안전한 조업을 바라는 제 의식으로 대자연 앞에 겸손한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우리의 문화이다”라고 하며 “풍어제를 함께하며 평온과 안식을 주는 바다에서 희망의 만선이 깃들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는 풍어제 행사(장승제, 칠성거리, 뗏배나가기)에 이어 관내 수산물 홍보, 화성 뱃놀이 축제 홍보, 소원피 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금일 행사를 주최한 공평항 풍어제 추진위원회는 남양만 어장의 풍어와 어업인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매년 풍어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 영주시

## 영주시의회, 15일 제280회 임시회 개최

### 조례안 등 20건 안건 심사, 주요 사업장 5개소 방문

영주시의회는 4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0회 임시회 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재)영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

의, 무소속, 다선거구, 가흥1·2동)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학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의힘, 마선거구, 유천2·3동)이 발의되어 있으며 관내 주요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다.

심재연 의장은 “ 동료 의원님들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시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김선일/기자



## 전북도의회 소식지

### ‘전북자치도의회’ 제86호 발간

#### 제406회·제407회 임시회 소통·공감동행하는 의정활동 내용 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 2024 봄호(제86호)』를 발간했다.

제86호에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열린 제406회와 제40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 의정활동 내용이 담겼다. 특히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 나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을 알리고,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사진 뉴스에 실었다.

또한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을 자세히 정리했다. 의원들은 출연기관 금융자산운영 문제와 지역아동센터 및 늘봄학교 연계 방안,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관련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점검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전북도립국악원 행정운영 개선과 인구감소 대책의 실효성 높이는 ‘인구변화인지 예산제’ 도입, 서예비엔날레조직위 전연 해산, 사회적 취약계층의 간병비 지원, 소외된 임업 분야 지원방안 마련 등을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QR코드로 연동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두 차례의 임시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38건과 건의·결의문 13건도 정리됐다. 대표적으로, 일제 잔재 발굴 및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 지원 조례, 인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퇴직교직원용 활용한 교육 지원 조례 등이 제정됐다.

특별 기고에는 현 의료문제를 살피고 대안을 짚어보는 ‘의료파업, 본질은 따로 있다’가 실렸으며, 한국가요촌 ‘달하’와 전북강변 여행지를 담은 ‘도의회 유튜브 채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공식 SNS 계정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강동화 위원장은 “이번 소식지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자치권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도의회의 각오와 의지를 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언, 그리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울산시의회 방인섭 환경복지위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발의

##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제공,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기여’

울산광역시의회 방인섭 의원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울산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 추진, 사업장의 재정 지원,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우선구매,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적합한 생산·판매·부대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뜻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전국 694개 표준사업장에서 16,093명의 장애인을 고용했고, 울산은 관내 25개 사업장에서 391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방인섭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실현하고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표준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우선구매 의무 등을 발판으로 장애인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방인섭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으며,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규진/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정원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 순천정원역으로 바꿔야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역 명칭 변경 촉구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12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천역의 명칭 변경을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1930년에 개통한 순천역은 연간 23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철도 교통 중추역으로 성장했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순천에는 철도 여행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어, 철도역은 지역홍보 효과가 가장 큰 시설로, 특히 역명은 역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과 역사 등을 함축하고 있어 지역 방문객의 인상에 남는 단어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객을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순천’이라는 역명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정원’을 넣은 ‘순천정원역’으로 변경된다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지역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장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순천역’의 역명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당성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순천역’에서 ‘순천정원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국회의장,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이승준/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원하는 배움이 다 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경기공유학교' 안정적 출발

### 4월 현재 경기공유학교 913개 프로그램 순차적 개강 및 학생 모집



경기교육청은 학교 밖 학습터에서 지역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해 더 넓고 깊게 배울 수 있는 경기공유학교가 31개 지역에서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맞춤형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 ▲지역기관(단체) 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위탁형과 학점인정형 프로그램도 올해 시범 운영한다.

4월 현재 913개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개강하며 61개 대학, 402교

민간운영자와 기관, 300여명 전문가와 교원이 참여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한다.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은 교육지원청이 학생, 학부모, 학교, 지역 수요에 기반해 개설한 지역 교육자원 활용 프로그램이다.

▲기초학력 ▲인성 ▲미래·에듀테크 ▲교과 심화 ▲생태·환경 ▲외국어 ▲문화예술·체육 ▲진로 분야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체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 등 미래·에듀테크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미래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체육과 진로 분야도 수요가 높았다.

현재 23개 지역에서 105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했는데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빠르게 모집됐다. 나머지 8개 지역도 순차적으로 학생을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 개설은 상시적으로 진행되며 수요 기반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학생기획형(경기이룸학교)은 기획 워크숍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1,134교가 지원했다. 3단계 선정 심사를 거쳐 402교를 선정하고 5월부터 운영한다.

대학연계형(경기이룸대학)은 강좌 개설 및 심의를 통과한 406개 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오는 29일 학생 수강 신청 이후 개설 강좌가 확정된다.

파주 법원초 문화예술 공유학교에 참여한 한 학생의 학부모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며 아이들에게 소중한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도교육청 김인숙 지역교육담당관은 "경기공유학교는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영역에서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이라며 지역사회의 재능있는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및 도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조례 개정 방향 논의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여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폐기물 발생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중 위원이 좌장을 맡고 유호준 위원과 김태형 위원은 각각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제37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해당 조례를 보류한 바 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서진석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1회용품 저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및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하여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례 개정 배경 및 주요개정 사항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유호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조례가 공공기관 현장에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연간 1회용품 감축 이행 계획의 구체적 목표 설정 및 단계적 이행 등 효과적인 감축으로 가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정임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1회용품 저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에 활용 가능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노섭 안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다회용기 등 일회용품 대체 서비스 사업 관련 기업과 협력을 통하여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 구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태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은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며, 불편함이 수반될 수는 있으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다회용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 수납, 비치하는 공간의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은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등 1회용품 사용 저감과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중 위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공감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김달수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김용성 부위원장은 참석하여 질의응답을 통한 논의를 함께했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검토'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9일 고양상담소에서 '일산서구 덕이동 데이터센터 직권취소 검토' 절차 착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어제(8일) 이동한 고양시장이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직권취소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고 발언한 게 한 언론사를 통해 공개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원이나 상업·문화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건축물이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시장의 검토 지시로 현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인근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에선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황이다.

고은정 의원은 "지난 1일 일부 주민

들께서 경기도에 일산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했다"며 "주요 내용은 국토계획법 위반, 주민의견 미청취, 건축허가서에 주소가 다른 점 등 3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시에서도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동한 시장의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 법률적 검토 지시를 환영한다"며 "단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사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주민께 꼼꼼히 보고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집회 현장에 주민과 함께하며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심히 파악할 수 있었고,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대응해주신 덕분에 '시장 직권취소 검토'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며 "지

역구 도의원으로서 일산 데이터센터 시장 직권취소는 물론이고, 주민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 24년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공사 설계시 연천군 지역주민소통 강조

### 지방도 375호선 어유지리~삼화리 구간, 지방도 372호선 연천 광동리 선형개량 사업 4월중 주민 설명회 및 의견 반영 추진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3월 연천상담소에서 지역주민 숙원사업인 지방도 공사 진행 등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지난 5일에는 2024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연천군 지역에 해당하는 구간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사 전반적인 설명회와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토록 강조하여 오는 4월중에 관계부서 및 공사관계자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및 의견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천군 관내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375호선 파주시 어유지리~연천군 삼화리 구간으로 2023.12월부터 2027.12월까지 총 사업비 예상 8,329백만원 중 현재 설계진행은 예산 366백만원으로 31% 공정률을 진행하고 있고, 지방도 372호선 연천 광동리 선형개량사업은 사업비 871백만원으로



0.52km 선형개량과 교통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2025년 6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현재 210백만원 예산으로 설계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4월중 신속하게 해당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 및 건의사항

에 대한 의견을 수렴토록 관계부서에 강력히 요구 했다"며 "공사 진행 및 결과에 있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요구사항에 대해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고 한다.

김범상/기자

**제47회 보성군민의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관민회합 피포티움, 축화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출.착: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 교수 경연대회, 주모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떡거리, 제철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일)  
홍지면 용반리 일림산 일원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일)  
농협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2024 한국유티미스트 전국요트대회**  
5. 4.(토) ~ 5. 5.(일)  
울포술밭해수욕장  
2개 종목 12개부(유티미스트 10, 토티즈 2)

**2024. 5. 3. ~ 5. 7. 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남도, 보성군,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

※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여주 도예인의 예술활동과 삶 조명하는 아카이브 영상 제작

### '여주예술인 디지털 아카이브' 신규 콘텐츠 '여주의 명장' 공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지난 3월 여주 도예인의 예술 활동과 삶을 기록하고자 제작한 '여주예술인 디지털 아카이브' 신규 콘텐츠 '여주의 명장'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신규콘텐츠 '여주의 명장'은 여주시 도예인 총 10명을 대상으로 여주 도예인의 예술 활동과 삶을 영상에 담아 제작했다.

아카이브 영상에는 도예인의 활동 계기, 작품 활동 및 소개, 작품 제작 과정, 인터뷰 등이 담겨있으며, 최종 영상 10편은 '여주예술인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와 재단 유튜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6월 오픈한 '여주예술인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는 여주 문화

예술 정책 개발과 여주 예술인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축했으며, 여주 문화예술인의 삶을 아카이빙하여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고 작품세계를 조명해 여주 문화예술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이번 영상을 통해 여주시 도예인의 삶과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작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여주 예술인 개인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여 여주 문화예술사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여주의 명장'에 출연한 여주시 도예 명장 및 도예 기능장의 작품



여주시 도예명장 제7호 지두현 JI DU HYUN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고산 송전철탐 이설 문제의 적절한 해법 강구해 달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수원 쪽에서 추진되고 있는 '광고산 송전철탐 이설' 사업에 대한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북동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경기도가 적절한 해법을 마련하는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용인특례시는 민선8기 이상일 시장 취임 후 '광고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 시행자 회의'에서 성북동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탐 이설공사를 곧 진행하겠다고 하자 이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당시 이 시장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중재해 달라고 했고, 이에 따라 GH의 송전철탐 이설 공사에 제동이 걸렸고, 문제의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GH 입장은 변치 않고 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와 만나 자리에서 "광고택지지구 송전철탐 이설 문제는 수원특례시 관할지역 사안이지만 용인특례시 수지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돼 온 만큼 도지사와 경기도가 각별한 관심으로 중재해서 적절한 해법이 도출되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GH가 수원시의 해당 아파트 주민 뜻대로 이설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용인특례시나 성북동 주민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김 지사님과 경기도가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도 전달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이같이 강조한 이유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GH가 지난 2021년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기존 계획대로 송전철탐 이설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설을 진행하라고 권고했다.

용인특례시는 송전철탐 이설 위치가 수원시 관할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처지이지만 조망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성북동 주민들의 반대가 타당하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광고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성북동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나 GH 측은 송전철탐 이설과 관련해 기존 계획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적극적인 중재 노력과 적절한 해법 마련을 요청한 것은 김 지사가 GH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성북동에 아주 근접한 곳으로 송전철탐을 옮기려 한다면 성북동 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GH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려워 김동연 지사에게 관심과 중재를 호소했다"며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은 광고 송전철탐 이설 문제를 GH가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려 한다면 용인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산 송전철탐 이설 문제는 오랜 전으로 올라간다. 지난 2010년 수원특례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해모리아파트 주민들이 송전철탐 이설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2012년 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북동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송전철탐 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탐 이설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GH 측은 사업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의회 의원과 이천시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진행됐다.

##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회 멘토-멘티 결연식

린 이번 결연식은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 10명과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김영희 시장,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에 대해 당선결과 배지를 수여하고 청소년의회 윤지선 의장, 이하린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현장을 낭독했다.

이후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결연증서 수여

식과 각 지역구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멘토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으로는 ▲학교교실바닥 온돌시공 ▲청소년 익명 고민과 응원의 글쓰기 캠페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이천시 내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청소년 무상교통 ▲청소년의 날 공휴일 지정 ▲바닥 신호등 설치 등으로 청소년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제안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중심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1년간 청소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 토론 및 입법 제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했으며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용인 성북동이 2차 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 철탐

## 수원시·국립수목원과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 협력한다

###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가치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와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식물 거버넌스'로 식물유전자원 보전을 위해 협력한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12일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식물 유전 자원의 전·보전·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임영석 국립수목원 원장이 업무협약서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수원시와 국립수목원은 ▲식물유전 자원 보전을 위한 공동연구 ▲산림생물자원 교환·지원 ▲수목원·정원 조성 에 관한 기술 검토와 자문 ▲전시·교

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협력 ▲정원산업·정원식품 등에 관한 정보 교류·협력 등을 약속했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식물 거버넌스 프로젝트는 식물을 매개로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 기반 식물자원의 보전·복원, 확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자생식물 정원 대상지를 제공하고, 정원조성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대량 증식기술 재배 등 연구개발의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수원 의 귀귀식물인

해오라비난초, 칠보치마를 비롯해 '수원'의 명칭이 포함된 자생식물 수원땅귀개, 수원골, 수원사초, 수원고랭이, 수원잔대, 수원사시나무 등 6종의 보전·복원, 확산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국립수목원과 ESG프로그램(기업의 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에코티어링(Ecotouring)·벚꽃엔딩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정원산업, 정원식품 관련 업무협력을 활성화해 수원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탄소중립 정원 조성을 추진하겠다"며 "수원시 탄



수종립 정원모형이 수원시 전제로 확산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화성시, '논 산책, 텃밭여행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 화성시, 공공급식 이용 확대와 생태감수성 향상 기대

화성시가 12일 화성시민대학에서 '논 산책, 텃밭여행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논 산책, 텃밭여행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키우고 농촌과 농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농촌 연계 체험프로그램으로, 협약에는 장안농원(텃밭) 등 체험 농가 4개소와 관내 어린이집 36개소가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체험농가는 어린이집 원아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촌 방문 및 농산물을 활용한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시는 ▲체험농가와 어린이집 간 상호 방문 프로그램 운영 ▲농촌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생태체험 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을 지원하게 된다.

김민규 농식품유통과장은 "어린이들이 농촌 연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연스럽게 농촌과 전통 식문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공공급식 이용 확대와 어린이들의 생태감수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참여 농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농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 성남시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첫 삽'

### 16일 기공식...공연장, 작은도서관, 4차산업 체험시설 등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산성공원 내 시민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오는 2026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뜬다.

성남시는 오는 4월 16일 오후 2시 신상진 성남시장과 지역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 기공식'을 한다.

숲속 커뮤니티센터는 사업비 337억원이 투입돼 부지면적 2만 3123㎡에 본관 2개 동과 별관 1개 동, 야외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본관 1동과 2동은 각각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이며, 작은도서관, 공유사무실, 산림치유 공간, 목공예 체험실, 실내운동 공간, 메타버스·가상현실(VR)·자율주행 등 4차산업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별관 1동은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에 카페, 매점 등이 설치된다.

아외에는 공연장, 배드민턴장, 반려견 놀이터 등을 조성한다.

건물 안팎엔 총 133대의 차량을 닿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산성공원 숲속 커뮤니티센터 건립으로 원도심의 생활문화공간을 확충해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문화와 휴식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성공원은 성남시가 1975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해 3만 483㎡ 규모로 조성한 원도심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자 연간 190만여 명이 찾는 성남의 명소다.

시는 남향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2013년~)로 유원지 일부(2만 125㎡)가 도로로 편입되면서 없어진 주차장을 새로 조성하고,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



김범상/기자



# 전남도, 다문화복지 실현으로 결혼이주여성 정착 유도

## 다문화가족 출신 도청 공무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추진



전라남도가 정주인구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추진 등 촘촘한 다문화복지 실현, 결혼이주여성 정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다문화가정 가구 수는 1만 5

이에 전남도는 다문화정책으로 사회 통합 친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차별 없는 성장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4대 분야 26개 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는 ▲ 결혼이주여성 산모도우미 양성교육 및 운영 ▲ 다문화 엄마학교 운영 ▲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비용 지원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결혼이주여성 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또 대다수 지원 정책이 가족센터나 시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출신(베트남)의 전남도청 공무원이 해당 시군 가족센터 모국어 상담사와 현장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

# 순천시, 18일까지 도서관주간 행사 운영

## 순천시립삼산도서관, 류선희 시민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 개최

순천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을 맞아 순천시 8개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만남, 공연, 체험, 전시 등 31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가와의 만남으로는 13일 『교실의 탄생』 저자인 류선희 작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한다. 류선희 작가는 순천 지역 작가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속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오는 18일은 2024년 순천시 ONE CITY ONE BOOK 『관계의 말들』의 홍승은 작가와 함께 '읽기와 쓰기로 다시 관계 맺기'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또한, ▲기적의도서관 '피터와 늑대' 어린이 연극 ▲연향도서관 '우주를 담은 책, 영화로 만나는 우주' 주제로 영화 상영도 이뤄진다. 체험으로는 ▲삼산도서관 '시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만들기' ▲연향도서관 '오감만족 도서관 오라실' ▲그림책도서관 '입체 종이인형만들기' ▲조례호수도서관 '캐릭터 키링·책갈피 만들기' ▲신대도서관 '나는 도서관 피아노 연주자', 전 도서관에서 ▲2024 ONE CITY ONE BOOK '관계의 말들' 밑

줄긋기 등이 진행된다. 이벤트로는 ▲2024년 순천시 메타버스 도서관 오픈 기념 '메타버스 캐릭터 꾸미기 대회' ▲삼산도서관 '1에게 기분을 말해봐' ▲신대도서관 '찰칵! 책 빌리는 나' ▲조례호수도서관 '우주를 줄게' 등이 준비돼 있다. 이 밖에 각 도서관별로 다양한 캐릭터 의상을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하며, 주제별 북 큐레이션을 통해 도서관 직원이 추천하는 책을 만날 수 있다. 순천시립작가와의 만남 및 사전 접수 프로그램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프로그램은 일정에 맞춰 도서관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서관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로 60주년이 되는 도서관 주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도서관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문화시설로, 시민들이 가까운 도서관 이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 나주시 평생교육 '나주愛 배움바우처' 큰 호응

## 1인당 15만원 학습비 지원...시민 3000명 최종 선정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남 최초로 시행 중인 '나주愛 배움바우처' 사업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나주시는 2024년도 '나주愛 배움바우처' 사업에 모두 7225명이 신청했으며, 자격 검증 후 전산 추첨을 통해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500명 선발 시 2756명이 신청해 1.1: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 올해는 2.4:1의 경쟁률을 기록했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부터 2년째 시행하고 있는 '나주愛 배움바우처'는 19세 이상 시민에게 1인당 연 15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나주愛 배움바우처'는 전용카드(광주은행) 형태로 지원되며 공예, 운동, 음악, 자격증 과정 등 지역 내 172개 등록기관(4. 4. 기준) 371개 프로그램들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 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나주시평생학습정보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년도 참여 대상자는 기존 카드에 학습비가 충전되며, 신규 선정자는 5월말까지 광주은행에서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10월말까지 카드를 사용(결제)해야 한다. 미 사용액은 자동 소멸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시민 누구나 차별없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나주愛 배움바우처' 정책을 시행중이다"면서 "배움이 즐거움이 되고 학습이 일상이 되는 '성인 교육의 1번지



나주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영안/기자

# 최경식 남원시장, 교(원)장들과 소통 간담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 11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관내 교(원)장들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는 것을 시작으로 전복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교육발전특구 지정, 남원인재학당 건립,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운영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장선생님은 "전복대 남원글로벌캠퍼스 설립,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남원 교육의 희망을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남원시의 교육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남원시 학생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간담회를 자주 갖기를 희망했다.

이남출/기자

2024. 4.12. — 4.18.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도서관협회, 순천시



따스한 바람이 코끝을 간질이고 들뜬이 운동 싱그러운 초록목으로 물든 봄이 찾아왔다. 봄의 설렘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행사가 전국에서 속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꽃과 나비가 반겨주는 '함평 나비대축제'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축제장 곳곳의 프로그램을 즐기고 가족·친구·연인과 인증샷을 남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자.

# "봄이다, 함평 가자~" 제26회 나비대축제 '팡파르'

## 4월26일부터 5월6일까지 11일간 엑스포공원·생태습지 일원

30종의 다채로운 꽃 80만 본과 산호랑나비, 배추흰나비 등 23종 25만 마리의 나비·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첫날인 26일 오전 9시 열리는 '나비 날리기' 행사가 축제의 서막을 알린다. 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 주무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개막 축하 공연으로는 가수 박지현, 지원이의 무대가 펼쳐진다.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일원에는 야외 나비날리기 체험, 전통민속놀이, 슬라이드 체험, 나비가면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매년 축제장 내에 대가령이 길게 늘어설 만큼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나비날리기는 올해도 유아·어린이 동반 가족(회당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나비 날리기는 매일 5회(10시, 11시, 13시30분, 14시30분, 15시30분) 실시할 계획이다. 잔디광장 주무대에서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나비콘서트 등 문화공연이 마련되며, 생태습지에서는 아기 동물과 친구되기, 쪼름쪼름 나들이 체험, 나비순수천 만들기, 비눗방울 놀이 등이 무료로 운영된다. 특히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자연 속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명대리기 좋은 곳'도 마련된다. 생태습지 일원에 10여 동의 텐트가 설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전 시연도 대대롭게 이루어진다. 다육식물관에서는 다육선인장, 용설란 등 650종 3천 본이 전시되며, 수생식물관에서는 열대야자, 수련 등 72종 546본과 비단잉어 등 4종 300마리가 전시된다. 아울러 나비·곤충생태관에서는 살아있는 나비 곤충 일대기와 실내 나비 날리기 체험이 진행되며, 나비곤충표본전시관에서는 세계 희귀 나비·곤충 표본과 곤충 VR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러간 하면, 올해 첫선을 보이는 '함평추억공작소'도 있다. 엑스포공원 내 금호아시아나관 옆에 지상 2층, 연면적 2천223㎡ 규모로 신축한 함평추억공작소는 1970-1980년대 함평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당시 실제 함평의 생활상을 축소·재현하여 이색적인 체험을 제공한다. 특히 이곳 전시장 1층 입구 공간에는 최근 금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은 황금박

로트 가수 박지현, 김정우가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또한 전국 청소년들이 끼와 춤 실력을 겨루는 '전국 청소년 댄스대회'가 열리며, 군민이 참여하는 전통민속놀이 경연대회가 마련돼 주민 누구나 축제의 주인이 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된다. 어린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연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마술쇼, 벌룬쇼, 인형극 등은 물론 지역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나비극 퍼레이드 쇼'도 운영한다. 주제영상관 내 VR체험장에서는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 등 VR 12종과 클레이사격, 축구 등 AR 2종을 체험할 수 있다. 황소의 문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함평한우 판매 부스가 마련되며, 축제기간 동안 차려 함평 한우 요리 시식회도 열린다. 나비의 문 광장에는 봄에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늘보리 정원을, 곤충생태교 앞 산책로에는 토끼, 곰, 기린, 고양이, 황소 등 나비숲 친구들 포토존을 조성한다. 이밖에 대 화양근린공원 내 맨발 걷기 돌레길인 '맨발로' 인근에는 아름다운 초화류를 만나볼 수 있으며,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새우란 전시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그림전시회가 열린다. 양서파충류 생태공원에서는 멸종위기의 양서·파충류를 관람할 수 있고, 초식동물농장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한다. 축제장은 밤이 되면 야간경관 조명이

김영진/기자









# 경북도, 수질오염 사전 예방 위한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점검



경북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법

## 가축분뇨 관련시설 합동점검 수질오염·악취발생 등 피해예방

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섞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

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안 거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도는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청송군 고추육묘지원사업단, 이웃돕기 성금 전달

청송군 고추육묘지원사업단에서 지난 9일 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청송군에 전달했다. 사업단은 고추육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육묘장으로 이루어진 단체로, 고추육묘가 어려운 소규모 농가 대상으로 파종부터 고추정식 전까지의 육묘관리를 대행하고 있다. 김시호 단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역주민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청송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고추육묘지원사업으로 이미 고추농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단에서 매년 이웃사랑 나눔에도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의령군,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생협력에 첫발 내딛다!

## 4.12. 15:00 의령군청에서 상생협약 체결... 박형준 시장, 오태완 군수 참석해 서명

부산시는 지난 12일 오후 3시 경상남도 의령군청에서 의령군과 환경부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상호 협력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영항지역 주민지원, 농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의령군을 전격 방문한 박형준 시장과 오태완 군수가 참석한 협약서에 직접 서명했다. '낙동강 유역 맑은 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1991년 폐해 사태 이후 부산과 동부경남 주민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지역의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사업이다. 의령과 창녕의 강변여과수와 합천 황강의 복류수를 하루 90만 톤 취수해 부산과 동부경남에 각각 42만 톤, 48만 톤씩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환경부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취수지점을 부산, 지점별 취수량을 축소함으로써 취수지역의 지하수위 저하를 최소화하고 창녕 함안보 상류지역의 강을 취수함으로써



취수 안정성 또한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시는 30년 숙원사업인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 공급'의 첫 물꼬를 트고,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주춧돌을 마련했으며, 의령군과 함께 상생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취수지역 농민의 피해예방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하고, 의령군 농산물 구매 지원 등 시와 의령군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2028년 건립 예정인 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200억 원 규모로 영항지역 농산물 구매를 지원할 예정이며, 취수지역 농민들이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상생협약식에는 평소 부산의 물 문제 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재부경남향우연합회 회장, 재부령

향우회 수석부회장, 농협중앙회부산본부장 등도 참석해 이들과 시 직원이 마련한 총 2,1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며 부산과 의령 간의 상생협력에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이들은 의령군 농축산물 구매 등 앞으로 민간차원의 지원사업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 시장은 취수지역 농민 지원과 피해예방 대책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마련하고자 이날 상생협약식을 마치고 의령군 취수원 개발예정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펴볼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해주신 의령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령군의 소중한 물을 나누기 위해서는 취수지역 주민분들의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이를 위한 충분한 주민지원과 농가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며, "특히,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이 예상되면 취수를 중단하는 등 주민분들의 피해방지와 지원을 위해 의령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 영양시외버스터미널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 터미널 운영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영양군은 4월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 주재로 인구 감소 및 노선 축소,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열악해진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안정성을 제시할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개선방안 및 기본구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1월에 착수해 올해 3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이번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주)도시경연연구원은 영양시외버스터미널의 환경분석, 공영화의 타당성, 터미널 복합화 기본구상, 연계사업 검토, 토지매입·수용 절차 등으로 나누어 운영 대책을 다양하게 검토 및 분석했다. 고령 인구의 주요 이동 수단인 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영양군은 기존 터미널 공공

매입, 상업시설, 공공업무 시설을 포함한 터미널 복합화 등 영양 시외버스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계획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늘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영양군민이 불편함이 없고 또한 지역주민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영양 시외버스터미널이 될 수 있도록 터미널의 문제점을 밝히고 공영화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도출하여 영양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공헌한 여성을

# 제21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

## 여성 지위 향상과 양성평등에 기여한 대구여성은 누구든 추천 가능

발굴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21회 대구광역시 여성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수상 자격은 공고일 현재(4.8.) 대구광역시에 3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면서 여성 지위 향상 및 권익증진에 공헌,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에 기여,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귀감이 되는 여성으로, 구청장·군수, 기관·단체장, 또는 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혹은 구·군 접수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발굴하고 실사 등 검증은 거친 후, 7월 중 여

성계, 학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수상자 1명을 선정하며, 9월 6일 엑스코에서 열리는 양성평등 기념식 행사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올해 21회를 맞는 대구광역시 여성대상은 지역 여성계에서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2004년 목련상으로 최초 시행했으며 2017년부터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대상으로 전환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다. 여성대상은 지금까지 총 36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으며, 수상자는 지역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대구광역시 흠

페이저 '우리 지역을 빛낸 사람들'에 게시되는 등의 예우를 받게 된다. 지난해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기부와 봉사 문화 확산에 앞장서 온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이 수상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과장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 문화 조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신 분을 주위에 적극적으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남도, 중국 유력 바이어 공략 위한 중국 최대 규모 수입박람회 참가

##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26일까지 모집

경상남도는 도내 소비재와 농식품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개척과 바이어 발굴을 위해 '2024년 제7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The 7th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에 참가할 기업 8개사를 모집한다. 이 박람회는 중국 정부가 주관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국가급 수입박람회로, 중국 바이어들이 대거 참가하여 중국 시장의 수요와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 플랫폼이다. 또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입을 주제로 한 국가급 박람회로 중국의 다른 박람회에서는 보기 힘든 유력 바이어들을 대거 만날 수 있으며, 바이어와의 기업 간 거래(B2B) 상담 성과도 높다. 중국 상해 국가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오는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개최되며, 경남도는 다른 지자체와 함께 소비재, 식품, 농산품 통합 한국관을 조성하여 참가한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중국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매칭, 기업당 개별부

스, 편도항공료(1사 1인), 통역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수출실적, 수출 기반 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중 최종 참가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128개 국가, 약 3,486개 기업이 참가했다. 특히 세계 500대 기업 중 289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바이어 및 관람객 약 41만 명이 참가했다. 도 내기업은 8개사가 참가해 상담 126건 927만2천 불, 계약기대액 587만 불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는 올해 상담액 1천만 불 이상 성과를 목표로 참가할 계획이다. 참가기업 모집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소비재 및 농식품 분야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 내 '사업공고 및 신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장재현/기자



# 봉화군에 올해 처음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해

봉화군은 지난 12일 봉화군 농업업회의소에서 라오스 계절근로자 52명의 입국 환영식을 개최했다. 지난 2023년 8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올해 처음으로 라오스 근로자들이 입국했으며, 오는 5월까지 66명이 입국한다. 특히 5월에 입국하는 근로자들 중 10명은 봉화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센터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현재 봉화군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등 4개국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고 있으며, 근로자 송출국가의 다양화를 통해 매해 안정적인 근로자 유치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필리핀 근로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근로자들과 농가주들과의 상견례가 이뤄졌으며 근로자들



김선일/기자

### 서울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 생산·충전하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 확대 나선다

#### 서울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단기간 내 인프라 구축 기대

전기차 보급 증가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유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수소차 충전시설까지 갖춘 '종합에너지스테이션(Total Energy Station)' 확산에 나섰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에서 대한석유협회, 대한엘피지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엘피지산업협회, 한국주유소협회 등 5개 민간기관과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은 전기 생산 및 친환경 차량 충전이 가능한 자가발전·충전시스템을 갖춘 미래형 주유소다. 협약에 앞서 시는 지난 2022년에 전국 최초로 금천구 소재 SK박미주유소에 종합에너지스테이션(TES) 1호점 설치한 데 이어, 양천구 개나리주유소, 영등포구 신길주유소 등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간 추진한 종합에



너지스테이션(TES) 사업 등을 바탕으로 내연기관차가 주로 이용하던 전통적인 주유소를 직접 전기 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지역 친환경 에너지 발전기지로 전환하는 데 협력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5개 민간기관은 ①주유소 및 충전소의 종합에너지스테이션 전환, ②신재생에너지 보

급 및 친환경차량 충전 인프라 확충에 상호 협력하고, 앞으로 협력기관 간 실무협회를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연료전지를 주유소에 설치해 송배전 손실을 경감하는 동시에 서울시 전력자립도와 전기공급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료전지는 설치 면적과 발생 소음이

작은 데 비해 효율은 우수하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공급망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 인프라 구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주유소는 서울 도심 전력 수요지 내에 위치하여 원거리 송·변전 손실, 송·변전 설비 추가건설 등 사회적 비용 없이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차량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시내 500여 개 주유소·충전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추가함으로써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 단기간 내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종합에너지스테이션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주유소를 미래형 친환경에너지 생산 공급기지로 변화시켰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계속해서 관련 규제 개선에 힘쓰는 등 서울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강남구, 특색있는 골목상권 발굴한다! 3개 공모사업 추진

#### 강남구 공식1호 특화거리 지정 및 조성사업 추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강남구 소상공인 동행마켓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특화거리 1호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상권활성화 공모 사업에 참여할 3개소를 모집한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동행마켓 참여자도 모집한다.

강남구 공식 1호 특화 거리를 찾아라! 최대 5천만 원 지원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강남구 공식 1호 특화거리에 참여할 상권을 모집한다.

공모 자격은 상인 자치기구가 조직되어 있고 같은 업종 10개 이상이 모여 있거나 동일 테마의 20개 이상 점포가 모여있는 상권 중에 상인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를 하면 된다. 특화거리로 선정되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과 간판·조형물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자부담으로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공모 신청 기간은 4월 15일부터 26일까지이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내부 심사를 거쳐 5월 말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상인들이 기획한 상권 활성화 지원...올해 3개소 각 1500만원 지원  
상인들이 상권을 부각시키고 알리기 위해 기획한 사업을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난해에는 세로수길 지도 제작 및 홍보, 일원동 맛의 거리 음식문화 축제, 자곡동 상권 쿠폰 발행 및 홍보 등 3개 상

권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했다  
올해는 총 3개소를 선정해 행사, 플리마켓, 로컬콘텐츠 개발, 홍보활동 등 공동마케팅 관련 사업으로 1개소당 1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20% 이상)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 말까지다.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하며, 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120개 팀에 현장마켓과 라이브커머스로 판로 개척 돕는 동행마켓 관련 소상공인의 홍보와 판로를 지원하는 동행마켓에 참여할 소상공인 120개 팀을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관내 소재한 업체 중 핸드메이드 제품, 약세서리, 디저트, 소품, 먹거리(밀키트) 등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오는 5월 23일~24일 10시~18시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동행마켓 기획전을 시작으로 총 6회를 진행한다. 현장 판매뿐만 아니라 업체 대표와 쇼호스트가 함께 진행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판매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상권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특색있는 로컬 콘텐츠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 서초에선 싱글도 싱글빙글~1인가구 동아리와 서포터즈의 두근두근 첫만남

#### 구, 12일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싱글싱글 동아리와 센터 서포터즈 첫만남 발대식 가



"작년부터 꽃꽂이에 취미가 같은 사람들과 동아리를 만들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1인 가구지만 동아리 회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니 외로움 틈이 없고, 화훼장식기사 자격증까지 취득해 올해는 꽃꽂이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돼 정말 기뻐요!"

지난해 서초1인가구지원센터 꽃꽂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A씨의 말이다.

서초구는 '서초1인가구지원센터'에서 활동할 1인 가구 '싱글싱글 동아리'와 서포터즈인 '포미단(ForMe단)'이 12일 드디어 한 데 만났다고 밝혔다.

2019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서초1

인가구지원센터는 1인 가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1인 가구들에게 필요한 건강, 안전, 생활, 관계돌봄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은 센터는 이번에 새롭게 옹근 '양재공영주차장' 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싱글싱글 동아리와 포미단 첫만남 발대식도 함께 했다.

5주년 기념식에서는 축하 행사와 더불어 인생네트 등 체험 부스, 게임 등 커뮤니티 마당, 음악공연 등이 마련돼 1인 가구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모여 즐겼다.

이어진 싱글싱글 동아리와 포미단 발대식에서는 올해 센터에서 활동하게 된 동아리원들과 서포터즈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참여 소감도 밝히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올해 1인 가구들이 모여 만든 '싱글싱글 동아리'는 21개 팀으로 93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꽃꽂이 동아리 '블라썸', 미술 활동 '그리다', IT 스테디 모임 '서초 잇(IT)다' 등 관심 분야별로 모인 동아리원들은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인당 월 최고 5만원까지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역시 1인 가구로 이뤄진 센터 서포터즈 '포미단(ForMe단)'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센터 홍보 역할을 하는데, 연 2회 공예·요리수업 등 맞춤형 특별강의와 우수 서포터즈 시상 등으로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센터에서는 고립·은둔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싱글싱글 방탈출' 특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사회활동이 힘든 1인 가구를 발굴해 이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 심리상담 및 검사, 센터 문화교실 참가권, 무료 커피쿠폰 등으로 구성된 '싱글싱글 방탈출 키트'를 제공한다. '싱글싱글 방탈출'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고립된 은둔청년이 요리강좌를 수강하려 나오는 등 의미있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구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 개발할 예정"이라며, "혼자지만 함께해서 행복한, 싱글빙글한 1인 가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큐(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 강원자치도, 지역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대대적 단속!

## 18개 시군 축제장에 21개 단속반 100여 명 투입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장 내에서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도 및 시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서는 강원자치도와 시군 공무원 및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 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 내에서 게시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향후 강원자치도 축제장 내 입점을 영구 제한하는 한편 예치된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강원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을 마련해 18개 시군에 통보하고, 일선 시군의 바

가지요금 물가 단속부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상인회 등과도 함께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소위 '야시장 업체'가 이미 지출한 입점료와 체재비 등의 비용을 짊어 축제기간 동안 보전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책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 업체의 입장을 최소화하고 그 자리에 지역업체가 들어와 우수한 먹거리를 착한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부득이 외부업체를 입점시켜야 할 경우에는 착한가격 업소를 대상으로 입점수수료를 감면하는 한편, 불공정거래행위 업소에는 입점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주지 않고 향후 강원도 축제장 내 입점을 영구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축제장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메뉴 사진과 가격, 종량·수량이 표기된 먹거리 가격표를 시군 및 지역축제 위원회 홈페이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 축제장을 찾는 소비자들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을 직접 평가받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축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 우수축제'에 대하여는 국·도비 및 컨설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우선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바가지요금 문제를 야기 시킨 축제에 대하여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관광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바가지요금은 찾아온 관광객까지 내쫓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공들여 만든 축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관광객들이 축제장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7개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 우수축제 9개, 시군 자체 축제 101개 등 총 117개의 축제가 매년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강호철/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 "간이역길 조성 온천 체험과 연계해 추진해야"

## 서부권(도고·선장) 지역 관광 명소화 추진

아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장항선 폐철도 활용 치유의 간이역길 조성 사업'에 대한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경귀 시장과 관련 부서장, 조정·디자인·관광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 추진 기본 구상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으며, 사업 구간의 전체적인 콘셉트 및 주요 테마(주제)를 도출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장항선 폐철도 활용 치유의 간이역길 조성 사업'은 (구)선장역부터 (구)학성역' 2.5km 구간을 테마(주제)와 스토리(이야기)가 있는 간이역 길과 건강 산책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흥물로 방치되어 있던 선장 간이역은 미관 저해 및 안전 문제가 지



속해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23년 충청남도 관광자원개발 사업 공모'를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6월 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각종 행정절차 진행 후 공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귀 시장은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에 이어 온천 수도를 선언한 만큼 열차와 온천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며, "길의 명칭을 '도고 온천행 완행열차길'로 하게 된다면 전국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 태백시, 코로나19 고위험군 대상 추가 예방접종 실시

태백시는 오는 15일부터 정부의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접종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매년 1회 시행하는 정기접종으로 변경됐으나, 현재 코로나19 변이 유행에 따라 백신의 효과성 및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추가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XBB.1.5. 성분의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기 접종자 중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추가

접종대상자 외 지난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은 관내 5개소 위탁의료기관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 가능하며, 방문 전 백신 접종 가능여부를 전화로 사전 문의하여야 한다.

추가접종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백신은 XBB.1.5. 기반 단가 백신으로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중 선택하여 접종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 또는 접종으로 형성된 코로나19 면역의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 특히, 다른 연령대에 비해 치

명률이 높은 65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꼭 추가 예방접종으로 면역력 향상 및 감염에 따른 중증화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 충남도, 중장년 근로자 정신건강 관리 확대 지원

## 도,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마음봄 사업장'...검진·사후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협력사업장

# 마음봄사업장

충남도는 도내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봄 사업장'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40~50대 자살 사망자는 1299명으로 전체 자살 사망자(3604명)의 36.04%로 나타났다.

아울러 2022년도 연령별 자살 사망자 중 40대(18%), 50대(19.1%), 60대(12.7%)의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에 대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중장년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살피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을 도모하는 마음봄 사업장 사업

을 추진해 고위험군 발굴 및 개입 체계 구축 등 자살 예방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다.

마음봄 사업장의 주요 내용은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고위험군 상담 및 치료 연계(치료비 지원 등) △사업장 내 정신건강 증진 동아리 운영 지원 △대면 및 비대면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교육 △사업주가 참여하는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캠페인 등이다.

지난해 사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30인 이상으로

지원 기준을 낮췄다.

도는 올해 도내 15개 시군에 마음봄 사업장 총 130곳 지정할 목표로 시군 여건에 따라 사업 참여가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운영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마음봄 사업장으로 지정한 80곳에 현판을 제작·배포했으며, 충남정신건강관리망(SIMS)을 통한 정신건강 검진 등을 추진했다.

또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나타난 근로자 52명을 대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했다.

이런회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장년 근로자를 중심으로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교육과 연계해 자살 위험성을 낮출 것"이라며 "중장년층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주와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충북 청년브랜드참여단, '문화의 바다'로 맞을 올린다

## 대표상징(CI) 개발에 이어 115년 역사의 충북도청사 본관 미디어파사드 전시 참여

충청북도도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소재 대학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및 영상디자인 전공 학생 60명으로 구성된 '2024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 청년브랜드참여단은 지난해 '충북의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충청북도 대표상징(CI) 개발에 참여했고, 올해는 '문화의 바다'를 주제로 충북도청사 본관 건물에 활용된 미디어파사드 제작·전시 아이디어 대회 형태로 운영된다.

115년 역사를 품고 있는 청사의 문화재로서의 가치와 디지털 융합기술이 만나 충북의 새 이름(BI) '중심에 서다'를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할 예정이다.

출범식은 김영환 충북지사, 박영원 충청북도 브랜드위원장(홍익대학교 교수), 브랜드위원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고, '충북 문화의 바다'로의 출항을 알리는 참여단의 퍼포먼스와 참여증서 수여식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미디어파사드 전시가 학교별 아이디어대회로 열리는 만큼, 각 대학 참여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선배 도의원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참여단 지도교수로 구성된 연출기획단 총감독을 맡은 김병완 서원대 교수는 "이번 참여단 활동은 프로젝트 맵핑, 레이저 퍼포먼스, 3D음향 등 융·복합 콘텐츠로 구성되는 실감형 미디어아트로 학생들이 직접 디지털 콘텐츠 제작은 물론, 배경음악 작곡에도 참여한다"며, "역사성을 지닌 도청사를 활용한 대형 미디어파사드 전시를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다양한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브랜드 강의를 통해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며, "우리 충청북도의 최고 자산은 우리 청년으로, 청년브랜드 참여단이 만들어 가는 젊고 혁신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Identity)가 '문화의 바다, 충북'을 비추는 빛(등대)이 되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세울 것을 확신한다"며, 참여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큰 기대를 표했다.

향후, 이번 출범식을 시작으로 제작될 미디어파사드 작품은 청주 원도심 골목길 축제(8.31~9.1)와 청주 음성 큰잔치(9.6~9.7)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13일간 도민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고정화/기자

www.dudc.or.kr

# 금호워터폴리스

# NATURE HUMAN CITY

상업, 근생, 자원, 단독주택,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금 예정

ANSIM NEWTOWN

안심뉴타운 ANSIM NEWTOWN

ANSIM NEWTOWN

다국도개발공사 분양문의 053) 350-03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dudc.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관악구,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상업문화도시로 한걸음 더!!

구역계 확대, 용도지역 조정가능지, 용적률, 최고높이 상향 등 개발 실현성 높혀



서울시 관악구는 4월 11일 서울시가 고시한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을 통해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등 일대에 대하여 서남권 상업문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는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기정 계획을 정비하고 신규 역사권과 노후화된 신원시장의 도시 관리 계획을 재편했다.

먼저 구는 지난 2022년에 개통된 신림선 당곡역의 동측 블록을 구역계에 편입, 편입 구역 중 제3종일반주거지

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 규모, 공공기여 등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획지계획의 규제 없이 자율적 공동개발을 통해 허용 용적률 350%, 높이 60m로 신축이 가능해져 신규 역사권 주변이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구는 신림역 주변의 규제외 적용하고 있는 획지를 해제하고 신림역 사거리 지하철 출입구와 연결한 필지에 한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공동개발을 유도, 역사권 거점 공간으로서의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토록 계획했다.

신림역 지하철 출입구 주변 협소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개발(특별지정)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50% 제공했고, 최고 높이도 기존 계획 70m에서 90m로 상향되어 개발 실현성이 더욱 높아졌다.

노후된 신원시장의 화려한 변신도 기대된다. 신원시장은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용도지역은 상향됐으나 용적률은 변경이 없어 개발이 지체됐다.

이에 이번 재정비에서는 2필지 이상

을 자율적 공동개발하고, 구의 필요 시설로 공공기여 시에는 용적률을 현재 250%에서 3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또한 상한 용적률 적용으로 단일 필지 개발도 용이해지며, 최고 높이는 기존 계획 20m에서 35m로 상향됐다.

아울러, 구는 개발 이후에도 현재의 시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힘썼다. 주차장설치 완화 구역을 시장 전역으로 확대, 1층을 시장 용도로 지정, 시장 시설물 보존 의무화 등 현재 시장 기능과 공간을 유지하면서 건축물의 신축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는 구역 내 핵심 상권인 순대타운, 별빛 거리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도 재정비했다. 순대타운, 별빛 거리 주요 보행축에 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음식점을 권장 용도로 지정, 건축물 특화 지침을 마련하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이번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당곡역, 신림역, 신원시장 등 일대가 서남권의 상업문화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대불국가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 구축

산자부 공모 선정돼 국비 200억 확보...산단 경쟁력 강화

전라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국가산단(이하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불산단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2024년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대불산단이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 지역 내 기업 성장 돕는다!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 개최

포항강소특구형 기업 성장 모델확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소개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는 지난 12일 포항 제인지업그라운드에서 지역 내 중소·벤처기업 및 공공연구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포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인 '특화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특구 내 특화분야 기업 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하반기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글로벌 맞춤형 기업집단지부 비즈니스모델 멘토링·현지 기업 매칭 등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24일부터 5월 7일까지 각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강소특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포항시 등 홈페이지의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포스텍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수 포항강소특구육성센터장은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포항강소특구는 지자체, 포스코 등 지역 내 여러 혁신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특구 내 기업 성장 인프라를 확충해 왔다"며, "앞

으로도 지속적인 전방위적 사업지원을 통해 특구 기업들이 유니콘,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강소특구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돼 산·학·연 협력 기반의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구소기업 39개 설립, 첨단기술기업 5개 지정, 기술이전 256건, 신규창업 67건, 매출액 897억 원, 일자리 창출 814명 등의 우수한 성과를 이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기술 기반 창업 기업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투자유치 부분에서 1,730억 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타 특구 대비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과기정통부 최우수 특구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민호 바이오미래산업과장은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포항 강소특구 육성의 핵심 전략인 기술창업과 성장,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포항 첨단신소재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충남도,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 뚫었다

도, 식품분야 도내 13개 기업 제품 독일 아마존 입점 완료

충남도가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지 5개월여 만에 도내 13개사 제품을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독일 아마존 입점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가 개최한 '독일 현지 수출상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김태홍 지사는 현지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해외 바이어들에게 도내기업 제품을 홍보했으며, 일회성 수출 촉진 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류시장 공략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입점한 13개사는 충남도내 식품분야 기업으로, 입점 품종은 홍삼, 가공품, 김, 가공식품, 가공식품, 가공식품 등이다.

도는 앞으로 기업별 판매실적 및 강-

약점 분석 리포트를 업체에 제공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마케팅과 잠재고객 대상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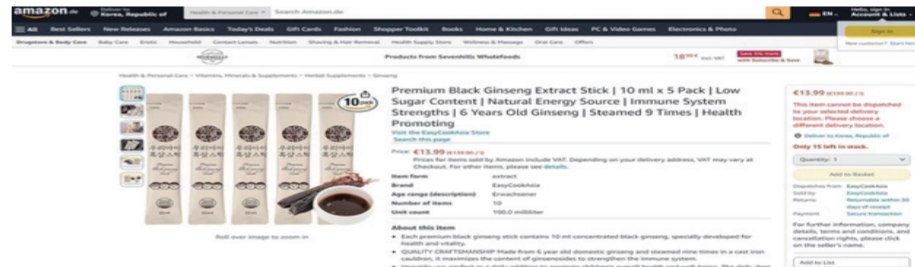
아마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만큼 최첨단 물류센터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집착에 가까운 만큼 고객 편의에 충실하는 경영철학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폭넓은 신뢰를 얻으며,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세

계 최고 온라인쇼핑 플랫폼으로 자리하고 있다.

유준영 투자통상정책관은 "코로나 19 이후 이커머스 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략해야 할 영역"이라며 "과다로운 규제와 절차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시장에 도내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광주광역시 'G-유니콘 육성기업' (주)에스오에스랩, 코스닥 상장 본격 돌입

북미지역 실증 등 지원효과 '뚜렷'...5월 육성기업 선정

광주시의 'G-유니콘 육성기업' 가운데 한국인 (주)에스오에스랩이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상장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광주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창업기업을 선발, 육성하는 'G-유니콘 기업' 지원사업이 지역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의 초석이 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G-유니콘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주)에스오에스랩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해 투자유치·판로지원 등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업기업 성장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G-유니콘 기업 선정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에스오에스랩은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인 글로벌(북미) 실

증(PoC) 프로그램을 통한 미국 시애틀 수요기업(메트롤라)과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또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대기업 개방형 혁신 전략(오픈이노베이션) 등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기업규모 확대에 힘써왔다.

이와 함께 지역 투자기관인 광주연합기술주주와 전남대기술주주가 운영하는 창업펀드의 투자를 받았다. 상장 전 지분투자(Pre-IPO) 단계부터 순조롭게 상장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신청해 이날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이 확정됐다.

에스오에스랩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라이더(LiDAR) 기술 특허를 보유한 지역기업이다. 자율주행차용 '라이더(LiDAR)' 기업 최초로 코스닥 상장이라는 목표에

도전, 2020년 9월 박셀바이오 이후 3년 6개월만에 지역기업의 코스닥 예심 승인 확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도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G-유니콘 육성프로그램' 참여 기업을 5월 선정, 최대 3억원 이내의 사업화자금과 기업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에스오에스랩의 코스닥 상장 승인은 광주로서도 큰 기쁨이고, 창업성공률이 높은 도시 광주의 증명이기도 하다"며 "G-유니콘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경북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3개 분야 선도학교 착수보고회 개최

#### 채맛데이, 맞춤형 건강급식, 교육과정 연계 영양식생활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북교육청은 12일 구미시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에서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급식 분야별 선도학교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국가 시책사업인 학생건강증진센터 추진과 학생 식생활 관리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학교 급식 선도학교에는 기후 위기에 대응한 먹거리 생태 전환교육의 하나로 실시되는 채맛데이 운영 선도학교 3교(점촌초등학교-문경, 선덕여자중학교-경주, 경북조리과학고등학교-문경),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선도학교 2교(초서초등학교-포항, 도촌초등학교-봉화), 영양상담과 교육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을 실천하는 맞춤형 건강급식 선도학교 2교(구미봉곡초등학교, 사곡고등학교-구미) 등 3가지 분야 총 7교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통해 초기 컨설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3년도 학교 급식 선도학교로 운영된 구미봉곡초등학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상담”으로 교육부 학교 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임중식 교육감은 “학교 급식 선도학교 운영으로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출형 건강급식 선도학교 2교(구미봉곡초등학교, 사곡고등학교-구미) 등 3가지 분야 총 7교가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선도학교를 대상으로 착수보고회를 통해 초기 컨설팅과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2023년도 학교 급식 선도학교로 운영된 구미봉곡초등학교는 “AI를 활용한 맞춤형 영양상담”으로 교육부 학교 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된 바 있다.

임중식 교육감은 “학교 급식 선도학교 운영으로 급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급식이 제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교육지원청, 행정실장 청렴다짐식 실시

#### 교육현장의 최전선에서의 청렴문화 실천의지 강조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11일, 봉화 관내 공·사립 유·초·중학교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다짐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청렴다짐식은 학생, 교직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민원인을 대하는 행정실의 청렴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행정실장들은 투명한 공직 분위기 조성, 원칙과 절차를 준수

하는 직무 수행, 금품 또는 향응에 단호히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청렴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권혜자 교육장은 “교육현장 최전선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행정실장들이 일선 학교의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며 청렴한 봉화교육 조성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김선일/기자



### 경북교육청, 지구별 특색 있는 학생 생활교육 정보공유의 장 마련



#### 2024학년도 경상북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총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12일 구미시에 있는 호텔금오산에서 지구별 학생생활교육 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 장학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학년도 경상북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선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학생 생활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4학년도 도와 지구

별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공유, 도 교육청·지구별·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방안, 휴가 중 학생 생활교육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임중식 교육감은 “이번 총회를 통해 지구별 특색 있는 학생생활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강북교육지원청,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 도움 청할수 있게 교육복지자가 진단·용지도 제공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은 오는 18일까지 강북지역 교육복지자가 배치되지 않은 중학교 25교를 대상으로 '라운포(For)춘(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운포(For)춘(春)'은 '즐거움'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인 '라운'에 포(For)와 춘(春)을 합친 말로, 봄(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뜻이다.

이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없도록 새로운 교육복지 대상 학생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이 학기 초에 필요한 학용품과 간식 등을 '라운포춘' 꾸러미(1인당 6만 1,000원 상당)로 꾸러미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강북교육지원청은 라운포춘 꾸러미에 교육복지 자가 진단 용지를 넣

어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학교나 지원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북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자가 배치되지 않은 중학교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 학생 50명을 선정했다.

이렇게 발굴된 학생들에게는 개별 요구에 맞게 사계절에 맞춰 다양한 중학교 프로그램과 지역 연계,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 부산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유공 모범운전자 표창

####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에 감사의 마음 전해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전략회의실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수송 등에 힘을 보탠 (사)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 19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장 수여는 수능 당일 교통 정리와 학생 수송 등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회원 339명은 2024학년도 대

학수학능력시험 수험장 등 140곳에서 현장 자원봉사에 나서신 한편, 비상 수송 차량 67대로 구성된 수송봉사대를 운영했다.

또한, 이들은 도시철도역과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서 교통 정리 등 봉사활동에 나섰고, 지각생·거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수송을 돕는 등 수능시험의 안정적 운영에 힘썼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수능 시험에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다”며 “부산교육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신 여러분께 부산교육 가족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피어나다 **남원**

춘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 춘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 용인특례시, 민간임대주택 사업 투자 주의 현수막 게시



용인특례시는 최근 시 전역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광고 중인 4곳의 민

### 지난 3일 피해 예방 안내문 공고 후속... 회원 모집 광고 성행 따른 조치

간임대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임의단체 회원 가입과 관련해 주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시청 앞, 기흥역 사거리, 처인구청 앞, 수지 KT 지사 앞 삼거리, 수지구청 사거리 등 주요 행정 현수막게시대 5곳에 내걸었다고 14일 밝혔다.

현수막은 '민간임대건설사업 관련 협동조합 발기인 또는 임의단체 회원 가입 주의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관내 민간임대주택 홍보 중인 사업(양지남곡 헤센시티 1차·2차, 삼가 위버하임, 신갈 펜타아너스)은 8일 현재 용인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임차인 모집 신고된 사항이 없는 사업이며,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탈퇴 및 출자금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한 광고가 성행하자 지난달 4곳의 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 협동조합 발기인, 투자자(회원) 모집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후 지난 3일 자세한 인허가 진행 현황 등 피해 예방 유의 사항 안내문을 공고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배포한 데 이어 이번엔 후속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

김범상/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대비 교통혼잡 개선, 파주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두 손 맞잡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및 교통대책 상생협약 체결



파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는 12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및 파주운정3지구 교통대책 마련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경일 시장,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4년 12월로 예정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과 운정3지구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주변 교통혼잡 개선'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도출한 교통대책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전에 반영함으로써 51만 파주시민의 교통 불편 최소화 및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광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환승센터 주변의 시물레이션을 통한 교통대책 마련과 환승주차장의 단계별 교통전환 계획 수립으로,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개통 및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전후 교통혼잡 최소화 및 최적의 대책 마련과 교통상황 점검이라는 공통 목표가 있기에 가능했다.

김영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운정신도시 교통여건 변화에 발맞춘 종합적인 교통 대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파주시와 상호협업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상호 협력을 통해 더 큰 성과와 결실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용역 추진 등을 통한 운정3지구의 근본적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중심의 교통선진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대구광역시,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 집중단속 실시

### 4월 15일부터 25일까지(8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단속 실시

대구광역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불법 주정차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해서 시, 구·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시민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주차 문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무단방치된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

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반납 불가구역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구역이며,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통해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해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상생 결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속도를 전국 최초로 25km/h에서 20km/h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km 이하 속도로 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대구시경찰청이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더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원도, 가축분뇨 관련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 추진

### 도내 가축분뇨 관련 184개소, 도(주관)·원주지방환경청·시군 합동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4.15.~6.28. 도 주관으로 원주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상반기 가축분뇨 합동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으로는 가축분뇨 배출 시설(축사 등) 중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에 인접한 시설 등으로 공공수역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고, 가축분뇨 퇴비를 하천 주변, 농경지 등 외부에 방

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등도 병행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적법 조치할 예정이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지도·점검 후에도 이행 실태 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가축분뇨 불법배출 근절 등 환경오염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철/기자



# 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와 예외의 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향방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



태음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성 경제수석,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자비산과 사과, 매실, 산수유, 오이



#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 경주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